

‘우리 마을의 기록을 찾습니다’

전주시, 5월 31일까지 ‘제12회 전주 기록물 수집 공모전’ 개최

전주시가 시민이 소장해온 전주의 기억을 모아 고유한 역사로 남기기 위해 시민들의 삶이 녹아있는 마을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기로 했다.

시는 6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우리 마을의 기록을 찾습니다.’를 주제로 ‘제12회 전주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은 특화 기록물 수집을 위한 기획 주제의 ‘마을’ 부문과 공통 주제인 ‘전주’ 부문으로 구분해 진행되며, 1999년 이전 생산된 기록물이면 신청할 수 있다.

먼저 기획 주제인 ‘마을’ 부문의 경우 마을과 동네, 촌락, 부락, 동 등 다양한 이름으로 알고 있는 ‘마을’에 관한 오래된 자료를 수집한다.

예를 들어 △마을공동체의 문서 자

료와 공동체 활동 백서, 개인이 작성한 마을 행사 관련 일기·편지 등의 문서류 △부녀회, 새마을운동, 모내기 등 공동체의 활동사진과 앨범 등 시청각류 △지우산, 부채, 한지 등 마을 단위 수공업 생산 도구 및 관련 생활용품 등 박물관이 수집 대상이다.

또한 공통 주제인 ‘전주의 기록’ 부문에는 전주와 관련된 시대성과 역사적 의미가 담긴 근현대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응모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의 새소식 게시판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phm0507@korea.kr)으로 접수하거나, 전주시민기록관(덕진구 견훤로 264, 063-281-2933)으로 해당 기록물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기록물에 대한 전주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중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수상작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모전을 통해 자료를 기증(기탁)한 시민에게는 심사를 통해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전통시장상품권이 주어지며, 민간기록물 기증(기탁)증서도 수여된다.

이에 앞서 시는 11회에 걸친 전주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통해 총 4747점의 전주 관련 기록물을 수집해왔다. 지난해에는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의 해를 맞아 ‘당신의 추억 속 어린이 기록을 찾습니다’를 주제로 1948년 전주중앙유치원 졸업사진과 미군정기를 포함한 6.25 이후 전주의 시대성이 담긴 사진 등 560여 점의 자료를 수집했다.

시는 향후 공모전을 통해 수집·기증된 시민 기록물을 향온합수와 소망



‘우리 마을의 기록을 찾습니다.’ 포스터
시설 등 보존 설비가 갖춰진 전주시민 기록관 수장고에 전주의 기록자산으로 보관할 계획이다. /양은경 기자

“‘전주 올해의 책’에 투표하세요”

시, 21일까지 온·오프라인 시민 선호도 조사 실시

전주시가 시민 손으로 2023년 전주를 대표할 책을 선정해 함께 읽기로 했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시민들이 1년 동안 함께 읽고 공감할 수 있는 ‘2023 전주 올해의 책’을 선정하기 위한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책으로 하나 되는 독서공동체 형성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전주를 대표하는 ‘전주 올해의 책’을 시민과 함께 선정하고, 독서운동을 전개하는 등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독서 생활화 운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는 그동안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의 3개 부문별 올해의 책을 선정해오던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올해는 어린이 부문 도서를 어린이(그림)·어린이(글)로 세분화해 뽑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그동안 공개모집을 거쳐 구성된 23명의 추천위원으로부터 78권의 도서를 추천받았으며, 전주독서대전 실무기획단 선정위원 회의를 거쳐 총 4부문 12권(어린이(그림)·어린이(글)·청소년·성인 3권씩)의 최종 후보 도서를 선정했다.

먼저 어린이(그림) 도서의 경우 △내가 예쁘다고?(황인찬 글·이명애 그림, 봄별) △하늘에서 돌아온 아이(최민지 글·그림, 모래알(카타리)) △한 장 한 장 그림책(이역배 글·그림, 세계잡)이 후보 도서로 선정됐다.

어린이(글) 도서는 △경성 기억(최영숙 저, 웅진주니어) △다짜고짜 맹탐정(김근혜 저, 책고래출판사) △집고양이 꼭지의 우연

한 외출(이경옥 저, 별숲)이 후보에 올랐다.

또한 청소년 도서는 △소리를 보는 소년(김은영 저, 서해문집) △우리의 정원(김지현 저, 세계잡) △테스터(이희영 저, 하북)의 3권의 책이, 성인 도서는 △나의 아름다운 할머니(심윤경 저, 세계잡) △이토록 평범한 미래(김연수 저, 문학동네) △인생의 역사(신형철 저, 난다)의 3권이 추천위원과 실무기획단원들의 선택을 받았다.

시민 선호도 조사는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 또는 휴관 중인 도서관을 제외한 9개 시립도서관과 시청 로비 책기증도서관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시는 후보도서 중 최다 득표를 받은 부문별 1권씩 총 4권을 ‘2023 전주 올해의 책’으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전주 올해의 책’은 오는 24일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과 전주독서대전 누리집(jbook.kr)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주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도서는 오는 4월부터 △독서달레이 △100일 필사 △저자 초청 강연 △가족 독서 토크 등 ‘2023 전주독서대전’과 연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 시 주제도서 등으로 활용된다.

김병수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전주 올해의 책을 선정하는 의미 있는 과정을 시민과 함께 나누고 책으로 하나 되는 전주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시민 선호도 조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올해의 책 사업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양은경 기자

전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기후위기 대응·미세먼지 저감 위해 10일까지 신청 받아

전주시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로 위를 달리며 매년 등 미세먼지를 내뿜는 노후 경유차를 줄이기로 했다.

시는 6일부터 10일까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35개 동 주민센터와 시청 기후변화대응과(현대해상 빌딩 4층)를 통해 접수 받는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규

모는 노후경유 자동차 4970여 대를 폐차할 수 있는 총 115억 원이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인 경유 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소유자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접수일 기준 오일 전주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일 경우에는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단, 정부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대상으로 추가돼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DPF 부착 여부 등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진단시스템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차량등록 제원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로 산정한 차량기준 가액표에 따라 결정되며, 폐차 후 대체차량 추가 구매시 지급되는 추가 보조금도 기준이 다른 만큼 전주시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해야 한다.

희망자는 전주시 누리집에서 내려 받은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청 기후변화대응과 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경유자동차 등급은 환경부 콜센터(1833-7435)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진단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1-2753, 5328, 8465~6)로 문의하면 된다. /조아름 기자

전북환경청,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점검 추진

전북지방환경청 송호석 청장은 새만금유역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을 이루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점검 계획을 6일 내놔다.

비점오염원이란 도시·산지·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오염원을 말한다. 오염원은 도시지역 노상의 먼지나 공사장 주변에 쌓여있는 오염물질이 빗물에 섞여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총 129개소로 개발사업장이나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3년 이내 미점검 사업장 등 96개

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면제 사업장 33개소는 자율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2023년 3월 현재, 관내 신고사업장은 총 328개소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이 137개소,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이 191개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신고사업장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운영 기준 준수, 기한 내 신고 및 변경 신고 이행 여부 등이다.

사업장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 준수 여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주기적 준설 여부 등을 점검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효율

저하 방지 및 시설관리 미흡으로 인한 수질 오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함이다.

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을 개선토록 조치하고, 사후 점검을 통해 개선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

지난 2022년에는 사업장 100개소에 대해 점검해 신고 미이행, 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 미흡 등 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개선토록 조치했다.

박건우 전북지방환경청 유역총량팀장은 “사업장 내 주변 청소, 저감시설 자체점검 등 사업장의 자발적 저감 노력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비점오염원이 적법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아름 기자

굿네이버스 전북지부 희망편지쓰기대회 진행

굿네이버스 전북지부(지부장 오아름)는 도내 14개 시·군 초등학교 7만 7,000명을 대상으로 제15회 희망편지쓰기대회를 6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진행한다.

이번 대회는 탄자니아 슬리마일의 이야기로 양봉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중, 꿀벌의 유입이 줄어들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탄자니아의 아동과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탄자니아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는 세계 곳곳에서 생계를 위협하고 있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경아 기자

완산소방서, ‘천양정’ 목조문화재 화재 예방 현장행정

전주 중화산동에 위치한 천양정(전주천서로 237)을 방문한 김장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봄철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행정을 6일 펼쳤다.

김 서장의 이번 방문은 다가오는 봄철을 맞아 화재 시 인명·재산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목조문화재에 대해 화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계자 자율 안전관리 강화 및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김 서장은 천양정 관계자로부터 문화재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천양정 이용객에 대한 초기 인명대피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여기서 봄철 목조문화재의 화재예방



강화를 당부하고 문화재 주변 출동로 상 장애물 설치 여부 확인과 화재 취약요인 점검을 실시했다.

김장수 서장은 “봄철은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평소 철저한 소방시설 관리와 화재위험요인 제거로 안전관리에 더욱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양은경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